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9월2주(1)〉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고?
국제신문의 도 넘은 ‘포스코 건설’ 띄우기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9월14일 11면 장호정 기자)는 바이라인이 적시된 지면 기사입니다.

바이라인도 있고 새로운 정보도 담고 있으나, 건설사 측에서 제공한 사진과 함께 ‘탁월한 주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아파트 품질만족지수 10년 연속 1위 기록’ 등과 같은 건설사 장점 위주로 기사 내용이 채워져 건설사 홍보성 기사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신문의 해당 기사는 포스코 건설이 ‘단독 입찰’을 결정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공동도급(컨소시엄)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만큼 ‘단독 입찰’은 포스코건설의 주요 홍보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털에 ‘대연8구역 포스코건설’을 검색하자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단독 입찰’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하반기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힙니다. 규모가 큰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부산일보의 <"대형 건설사가 금품 제공" 대연 8구역 수주전 '진흙탕'>(9월8일 4면 곽진석 기자)기사를 보면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조사에 나설 정도로, 대연8구역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찰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해 아쉬움이 큽니다.

국제신문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부동산 11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

대연8 재개발 구역 입찰 본격화

포스코건설이 부산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남구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에 단독 입찰로 출사표를 던졌다.

대연 8구역은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원에 아파트 3530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비가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21일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12개 건설사가 컨소시엄 또는 단독 참여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단독입찰을 결정했다.

통상 시공 리스크를 나누는 컨소시엄 사업보다 단독시공은 재무적 부담이 크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전체 아파트 품질이 균일하면서도 해당 건설사의 특화설계와 탁월한 주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2조7000억 원으로 업계 2위를 기록한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평가받음으로써 3년 만에 BIG 5 건설사로 재진입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을 종전의 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신반포 18차와 21차, 가락현대 5차 등 강남권에서 연이어 사업을 따내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번에 서울 강남의 품격을 부산 대연8구역에서 고스란히 재현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더샵 센텀파크(3750세대)'를 시작으로 부산에만 2만 8000여 세대를 공급했다. 1조4000억 원 규모의 부산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더샵(101층)'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올해 초 리뉴얼된 브랜드 '더샵'은 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 평가에서 아파트 품질만족지수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업계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소비자포럼과 미국브랜드기가 공동 주관하는 브랜드고객충성도 아파트부문에서는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능률협회컨설팅 주관 브랜드 추천지수 1위에 이어 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웰빙 환경 만족지수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등 포스코건설은 검증된 브랜드 '더샵'과 최고의 사업조건 및 설계로 대연 8구역을 최고의 명품아파트 단지로 변화시켰다는 각오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 단독입찰을 결정한 만큼 조합원들도 포스코건설의 의지와 진정성을 알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출이익률을 낮게 책정한 만큼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지역 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창효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부산 남구 일대 3500 세대 규모 대형 건설사들 수주 경쟁 치열

지난해 도시정비 실적 업계 2위 단독시공 통해 균일한 품질 보장 특화된 설계·편의시설도 경쟁력 "검증된 브랜드로 명품단지 조성"

포스코건설은 오는 15일 부산 남구 대연8재개발 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 등과 수주 경쟁을 벌인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해운대엘시티더샵 아파트 전경. 왼쪽 작은 사진은 포스코건설 본사 건물. 국제신문DB·건설사 제공

▲ 국제신문, 9월 14일 11면

2018년 산재사망 사고 1위 업체, 포스코 건설
국제신문은 '엘시티 성공'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보면 2018년에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포스코건설(10명)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의 <'엘시티' 성공 자신감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입찰 참여 승부수> 기사에 첨부된 '해운대엘시티더샵' 공사 현장에서도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

건이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헤드라인에서 포스코 건설을 '엘시티 성공 자신감'이라 수식했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서 또 안전사고

강서구 명지동 포스코 더샵 근로자 3층 높이서 추락사

포스코건설이 부산에서 짓는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21일 오후 2시50분께 강서구 명지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공사장 건물 3층 7m 높이에서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던 근로자 A(60) 씨가 추락했다. 이에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4시5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사 현장 책임자를 불러 근로자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께 해운대구 주상복합 단지 엘시티 A동 공사장 건물 55층에서 안전작업 발판 구조물이 20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근로자 3명이 함께 추락해 숨졌다. 근로자들은 54층에 있던 박스 형태의 안전작업 발판 구조물을 55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 1명도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변을 당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국제신문, 2018년 12월 22일 8면 기사

국제신문의 포스코건설 띄우기
이번이 처음 아니야

폭염이 이어지던 8월 24일, 국제신문은 4면에 <폭염에 마스크…야외노동자는 열사병 위험 노출>(김진룡 이준용 기자)을 실었습니다. 건설, 택배 등 현장을 찾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고충, 열병에 쓰러진 농민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으로 소개한 '부산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

장'에 대해서만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문제 삼기 보단, "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매일 이 시간(2시)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두고, 200여 명의 인부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대형 제빙기도 3대 마련해 수시로 얼음을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보건위생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을 전하는 기사에서 포스코건설 현장만큼은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폭염에 마스크… 야외노동자는 열사병 위험 노출

찜통더위 속 건설 현장 인부들
속도전에 내몰려 휴식 등 부족
사각지대 방치 "쓰러질까 걱정"

택배기사 계단과 전쟁 '땀범벅'
"가방에 속옷 2개 챙겨 다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중고가 극심하다. 혼자 야외에서 일하다가 온열질환에 노출돼 숨지는 사례도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부산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찜통더위에 인부들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며 공사에 매진했다. 평소 같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할 텐데 코로나19 확산 탓에 무더위에도 입을 가렸다. 마스크 대신 햇빛을 가리는 목토시를 입 주위까지 올려 일하는 인부들도 있었다. 현장 인부인 이모 씨는 "무더위에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들다"면서 "나를 포함해 주변 동료들이 혹시나 더위를 먹고 쓰러지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모든 인부가 일을 멈추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매일 이 시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두고, 200여 명의 인부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대형 제빙기도 3대 마련해 수시로 얼음을 제공한다. 이 건설사 정장임 보건관리자는 "집단으로 모이는 교육은 자제하고, 매일 발열체크를 하는 것은 물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한다"면서 "인부의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감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위생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동자도 폭염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였다. 택배기사 김모(42) 씨는 이날 하루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쉴 틈이 없다고 말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빌라와 상가에서는 요즘 같은 더위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금세 땀에 젖는다.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연신 닦아보지만, 수건 역시 뜨거운 열기에 달아올라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김 씨는 "하루 수백 개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가방에 속옷을 두 개 더 넣어 다닌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써야 해 더욱더 힘들다"고 말했다.

야외에서 혼자 일하던 70대 남성이 무더위에 숨지는 일도 일어났다.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고성군 한 밭에서 마을주민 A(70)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토대로 혼자서 밭일을 하던 A 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도였다.

이처럼 야외 노동자는 코로나까지 겹친 폭염에 방치되다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노동안전보건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에도 속도전과 갑질문화로 건설노동자의 쉴 권리를 내세우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54명(83.1%)은 '폭염경보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폭염대책이 집중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야외 노동자에까지 관심을 쏟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100명, 올해 44명(23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208명)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 이 감시를 시작한 이후 온열질환자들은 증가 추세다.

김진통 이준영 기자 jinyongk@kookje.co.kr

지난 21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마련된 야외휴게실에서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국제신문, 8월 24일 4면